

페루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페루

I. 일반개황

면적	1,285천 Km ²	GDP	1,090억 달러(2007년)
인구	27.90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3,907달러(200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Nuevo Sol(NS)
대외정책	실리주의 경제외교	환율(달러당)	3.13

- 페루는 남미 중서부에 위치한 태평양 연안국으로서 해안선을 따라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달리는 5,000m 이상의 안데스산맥이 국토를 3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약 2,800만 명의 인구, 남미에서 3번째로 광활한 영토(한반도의 약 6배), 천연가스, 금, 동, 아연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임.
- 최근 수년간 대외경제여건 호조에 따른 수출 증대에 힘입어 고도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국가신인도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5.2	6.4	7.7	9.0	8.5
재정수지 / GDP	-1.0	-0.3	2.1	3.2	2.7
소비자물가상승률	3.7	1.6	2.0	1.8	5.7

자료 : IFS, EIU

□ 고도 성장세, 다소 둔화

- 2005년 페루경제는 국제광물가격 호조의 지속에 따른 금 및 동의 수출 증가, Camisea 천연가스전 본격 개발,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6.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2006년에도 수출호조 및 내수확대 추세가 지속되어 7.7%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2007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강세 지속과 더불어 미국과 FTA 발효, 까미세아 가스개발 2단계 공사 본격화 등에 힘입어 9%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룸.
- 2008년에는 미국 및 EU 경기 침체, 광물가격 안정세 반전 성장세 지속, 내수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물가는 안정적이나 상승압력 확대

- 동국 중앙은행은 2002년 이래 외환시장 개입,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2.5% 기준으로 상하 1% (1.5%~3.5%) 이내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4년에는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공급량 감소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한 3.7%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5년 이후 농산물 공급수준 회복, 까미세아 가스전의 천연가스 공급 증가에 따른 국내 에너지가격 하락 및 동국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다시 중앙은행 목표 수준으로 낮아짐.
- 2007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낮은 1.8%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식료품 가격 인상, 최저 임금 인상 등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되어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5.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흑자 기조 유지

- 페루 정부는 세수확대를 위해 2003년 8월 부가가치세율을 18%에서 19%로 인상하였고, 2004년에는 법인세율을 27%에서 30%로 인상하는 등 일련의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음.
- 이와 더불어 2003년 5월에는 비금융공공분야(NFPS) 적자의 한도를 GDP의 1%로 설정하고, 연간 재정지출증가율을 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책임투명성법(Fiscal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Law)이 페루의회를 통과하였음.
- 페루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개혁 조치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로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보이던 재정수지가 2006년에 흑자로 전환됨.
- 정부의 신중한 재정운영과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 확대에 힘입어 2007년에도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며, 향후에도 당분간 흑자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광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대

- 광업은 1995년-2004년간 연평균 1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페루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15억 달러 규모의 까미세아 가스전 개발이 페루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광업계의 직접 고용 인력은 67,000명, 간접 고용인원은 335,000명에 달하며 관련업종 고용인구는 총 150만 명으로 페루 총 인구의 약 5.4%에 달하고 있음.

- 그러나 광업이 페루 수출 및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국제원자재 가격하락과 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태임.

□ 남미의 자원부국

- 페루는 동(2위), 금(5위), 은(1위), 아연(2위), 주석(3위), 비수무트(3위), 인듐 등의 생산량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남미의 주요 자원부국 중 하나임.

○ 특히, 세계 동 매장량의 15%를 보유하고 있는 페루는 국제 구리 가격 호조 및 광업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가 증가하면서 칠레에 이어 세계 2위의 동 생산국으로 부상하였음.

- 페루는 또한 남미 제7위의 가스 매장국으로서 까미세아 가스전 개발로 일일 약 217.8백만입방피트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9년에 Hunt Oil Co.가 주도하는 페루 남부해안의 25억 달러규모 천연가스 수출 플랜트가 가동을 시작할 경우 600백만 입방피트 규모의 생산설비를 풀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기존의 자유주의 경제정책 지속 전망

- 가르시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으며, 급진좌파 민족주의자로 분류되는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음.

- 가르시아 정부는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확충과 거시경제 안정 유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연평균 7%대의 성장을 이룩하고, 재정적자를 GDP의 1% 이내로 축소하여 국가채무를 GDP의 30%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외채축소를 위해 외화표시 정부채를 현지화 채무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함. 그 결과, 2008년 11월 현재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외채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정책 목표 수준 이상으로 개선됨.

□ FTA 협상 활발

- 2006년 6월 28일 페루의회는 2004년 5월부터 거의 2년간의 협상 끝에 2006년 4월 12일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하여 총 120 명 중 99명이 출석하여 찬성 79표, 반대 14표, 기권 6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비준하였으며, 미국 의회도 2007년 11월 최종 비준함으로써 페루-미국 FTA는 본격 발효되었음.
- 미국은 페루의 주요 수출국가로서 페루의 2006년 수출액 238억 달러 중 약 24%을 차지하고 있음. 페루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구리, 금 등 광물자원 및 천연가스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2011년까지 총 수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페루는 2008년 5월 캐나다 및 싱가포르와도 FTA를 체결하였으며, 아시아 지역과의 교역확대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중임. 특히, 캐나다의 경우 페루 수출 대상국 3위이자 페루의 광업, 금융 부문 등의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로 향후 금, 아연, 동, 가축사료, 농산물 등의 페루의 수출 확대는 물론 다양한 부문으로의 FDI 유입 확대가 기대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19	1,148	2,457	1,516	-2,167
경 상 수 지 / G D P	0.0	1.5	2.6	1.4	-1.7
상 품 수 지	3,004	5,286	8,934	8,356	5,143
수 출	12,809	17,368	23,800	27,956	34,594
수 입	9,805	12,082	14,866	19,599	29,451
외 환 보 유 액	12,176	13,599	16,732	26,853	35,357
총 외 채 잔 액	31,218	28,653	28,300	32,600	34,4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44.8	36.1	30.3	29.9	26.2
D. S. R.	16.7	27.3	13.6	22.0	13.1

자료 : IFS, EIU

□ 수출입 증가세 지속

- 주요 수출품인 광물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동 및 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미국과 FTA 발효에 따라 커피, 감자 등의 농산물 및 면, 모 등의 섬유 수출이 활성화되는 등 최근 수년간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있음.
- o 수출규모는 2003년 91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280억 달러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 o 페루는 1차 상품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동, 금, 아연 등 광물자원 및 수산물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광물자원의 수출은 총수출액의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산물의 수출이 7%를 차지하고 있음.
- 수입도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광업 및 가스전 개발 투자자들의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o 수입규모는 2003년 82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196억 달러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년대비 50.3% 증가한 29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2008년부터 적자 반전 전망

- 광물 수출호조 지속으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유지되고 있으나, 수입급증으로 향후 흑자 규모는 감소세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됨.
- o 2006년과 2007년 상품수지 흑자는 각각 89억 달러와 8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수입 급증으로 흑자 규모는 51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상품수지 개선으로 경상수지도 흑자기조가 유지되었음. 2006년에는 경상수지가 25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의 1.4%인 1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8년에는 다국적 광업회사들의 과실송금 및 외채 조기상환 등으로 인해 소득수지 적자규모가 8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상수지는 5년 만에 적자로 반전할 것으로 보임.

□ FDI 유입 지속 전망

- 까미세아 천연가스전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투자도 증가함에 따라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페루는 중남미 6위의 FDI 유입국으로 2007년 중남미 전체 FDI 유입액의 5%에 해당하는 53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페루로 유입됨.
- 2005년 FDI 유입실적은 25억 달러였으며, 2006년에도 브라질-페루 남미횡단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및 공항, 광산, 항만,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 부문 양허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로 FDI 규모가 3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 2007년에도 FDI 유입액은 50억 달러를 상회하며, 2005년 대비 두배 이상의 큰 증가를 보였으며, 2007년 11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향후 대미수출산업 부문의 FDI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외채상황 호전

- 2007년 말 현재 총 외채규모는 GDP의 29.9%에 해당하는 326억 달러에 불과함. 최근 수년간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동국의 외채상환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 2007년 D.S.R.은 전년보다 높아진 22.0%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파리클럽 채무의 조기상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임.

□ 외환보유액 꾸준히 증가

- 수출 증가와 FDI 유입 증대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12월 현재 269억 달러(수입 9.5개월분)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현재 페루는 외환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당분간 외환 부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2006년 7월 28일 가르시아 정부 출범

- 2006년 6월 4일 실시된 대선에서 아프라당(APRA)의 중도좌파 알란 가르시아 후보가 급진좌파 민족주의자인 페루동맹당(UPP)의 오안따 우말라(Ollanta Humala)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됨.
-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1985~1990년까지 집권한 바 있으나, 집권 당시 은행 국유화, 외채상환 거부(1986년 9월) 등 경제정책 실패로 식량난이 발생하고 게릴라 단체가 준동하는 등 경제를 파탄시킨 실패한 대통령(1992~2001년 국외망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음.
- 또한 그가 중남미 정통 좌파정당인 아프라당(APRA) 출신으로 좌파 성향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페루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그러나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스페인 상업은행인 BBVA 은행의 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톨레도 정부에서 경제부 차관을 지낸 강경한 보수주의자이며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루이스 까란사(Luis Carranza)를 경제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를 취함.
- 또한 급진좌파 민족주의자로 분류되는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집권 이후에도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우려가 수그러듦.
- 가르시아 정부는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확충과 거시경제 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함.

□ 가르시아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

- 최근의 물가상승률 상승, 에너지 공급난, 사회적 불안정의 지속으로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취임 당시 50%를 넘어섰던 지지도는 2007년 12월 38%까지 하향된데 이어 2008년 8월에는 22%까지 떨어짐.
- 2008년 8월 의회에 상정된 2009년 정부예산안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약 245억 달러의 정부지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빈곤퇴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현 대통령의 공약에 비해 규모 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이는 국내소비 증가를 완화하여 물가상승 압력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되나, 지역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음.

□ 후지모리 전대통령의 법정 심판을 둘러싼 국론 분열 가능성 대두

- 페루 대법원은 2007년 12월 권력남용죄로 후지모리 전대통령에게 징역 6년형과 벌금 13만4900달러(약 1억2500만원)의 형을 선고함.
- 현재 페루에서는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해 “역대 최고 대통령이며 현 페루 경제성장을 이끌고 좌익 게릴라를 척결한 영웅”이라는 의견과 “인권탄압의 부패한 대통령”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맞서고 있음.
- 현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 향후 후지모리 지지자들과 현정부 지지자들간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는 대체로 양호

- 페루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콜롬비아 정부와 함께 마약밀매 근절을 위한 국경지방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속과정으로 인한 콜롬비아 게릴라 단체와의 충돌 우려를 제외하고는 주변국과는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외무장관에 직업외교관 출신의 호세 안토니오 가르시아 벨라운데를 임명하였는 바, 이는 페루가 미국-페루 자유무역협정과 안데안공통체(CAN)를 중시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칠레와의 관계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사회불안 요소 상존

- 페루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절대빈곤층도 24%에 달하고 있음. 지니계수가 0.48에 달하는 등 빈부격차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며, 빈곤으로부터 파생하는 치안불안 문제 등 사회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디오 대부분이 안데스 고원지대와 동부 밀림지대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메스티조와 백인은 주로 해안저지대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해안저지대에 밀집하여 지역 간, 계층 간 빈부격차가 심함.
- 교원노조, 의료분야 노조들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총파업과 광산지대를 중심으로 민영화 반대 시위도 빈발하나, 게릴라 단체의 활동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며, 내전이나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임.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국가신용등급 지속 상승

- 2005년 6월 OECD에서는 동국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파리클럽과의 채무관계 호전으로 외채부담이 완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의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상향조정하였음.

- S&P도 2005년 7월에 동국의 신용등급전망을 'Stable'에서 'Positive'로 상향조정하였고, 2006년 11월에는 페루의 경제성장 호조 지속과 국가 채무 부담 감소 추세 및 정치적 안정을 반영해 종전 BB에서 투자적격등급보다 1단계 낮은 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음.
- Moody's도 2007년 7월 페루의 지속적인 수출증가에 따른 외화보유고 증가 및 대외채무감축 정책 등으로 대외채무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대외부문 취약성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종전 Ba3에서 B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음.

□ 2008년에도 일제히 상향조정

- 2008년 4월 Fitch는 적극적 재정 및 외채관리 능력 향상 및 외환보유액의 증가로 공공부문의 경우 순채권국이 되었으며,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가격 상승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페루의 국가등급을 BBB-로 상향조정함.
 - OECD도 2008년 6월 국가위험도평가회의(CRE)에서 최근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 및 무역상대국 다변화 성공, FDI 유입 증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등을 고려하여 3등급으로 상향조정함.
 - 2008년 7월에는 S&P가 재정수지 개선과 대외부문 변동성 감소로 경제 리스크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적인 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환경이 건설해지고 있음을 반영하여 BBB-로 상향조정함.
 - 2008년 8월 Moody's 또한 국내시장 조달자금으로 외채를 조기상환하면서 정부의 외화표시채무가 크게 감소하였고, 금융권 여·수신의 달러표시 비중도 최근들어 감소세에 있어 페루의 외환관련 신인도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여 Ba1으로 상향조정함.
- o OECD : 5등급(04. 6) → 4등급(05. 6) → 3등급(08. 6)
 - o Moody's : Ba3(99. 7) → Ba2 (07. 7) → Ba1 (08. 8)
 - o S&P : BB-(00.11) → BB(04. 6) → BB+ (06.11) → BBB- (08. 7)
 - o Fitch : BB-(01. 4) → BB(04. 11) → BB+ (06.8) → BBB- (08. 4)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US EXIM :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최고 부보율 적용

3. 외채상환태도

□ 외채위기 경험국이나 외채 상환태도 양호

- 동국은 1986년 9월 국제상업은행단과의 외채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원리금 상환 지불유예를 선언함에 따라 국제기관과의 관계가 냉각되어 한 동안 신규차입이 동결되었음.
- 그러나 1990년 출범한 후지모리 정부가 IMF가 제시한 거시경제 안정화 방안을 적극 수용하고, 외채상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1996년 이후 신규차입이 재개되는 등 국제신인도가 회복되었음.

□ 글로벌 본드 발행 등을 통한 채무스왑 및 조기상환 실시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회복으로 2002년 2월에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는 데 성공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큰 무리 없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또한, 국제금리 하락을 활용하여 12억 달러의 브래디 본드를 신규 글로벌 본드와 스왑하여 조기 상환하는 등 외채상환부담을 상당부분 경감시켰음.
- 한편 2005년 6월에도 동국은 파리클럽에 대한 채무 80억 달러 중 2009년 12월까지 만기도래하는 원금 20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였음. 동국은 이를 위해 7.5억 달러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는 한편 국내채권시장에서도 현지화로 4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였는바, 이는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외채상환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외채는 현지화 표시 내국채로 전환됨에 따라 환리스크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됨.
- 2007년 5월에는 우리스 까란사 재무장관이 파리클럽 외채 57.5억 달러 중 2007~15년 동안 기일이 도래하는 외채 25억 달러의 조기상환 계획을 발표

하였고, 파리클럽 회원국이 페루의 조기상환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10월 1일자로 조기상환이 실시되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07년 대페루 상품수지 5.7억 달러의 적자 기록

- 페루경제 호황세 지속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페루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광물수입 증가로 인해 2007년에 대페루 상품수지는 5.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o 수출: 359 백만 달러(2006년) -> 466백만 달러(2007년)
- o 수입: 676 백만 달러(2006년) -> 1,040백만 달러(2007년)

□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288건, 647백만 달러(2008년 6월말 기준)

V. 종합 의견

- 페루는 주요 수출품인 광물의 국제가격 상승, 까미세아 가스전 프로젝트 및 광물개발 프로젝트 추진, 미국과의 FTA 체결 등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고도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06년 7월 출범한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시장개방, 경제자유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친시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성장, 물가, 재정, 환율, 수출, 외환보유액, 외채 등 거시경제 전반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2008년에는 미국 및 EU 경제 침체, 내수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그동안 지속되었던 고성장 기조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외채잔액 축소, 외환보유액 증가 등에 힘입어 대외지급능력 및 국제신인도 부문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문의 : 책임조사역 최성규(☎ 3779-6662)

E-mail : ppio93@koreaexim.go.kr